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16호

학생선수 결석 허용일 축소 관련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희생돼서는 안 된다

김현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활동 활성화, 문체부도 나선다

장강훈 스포츠서울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취업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상이군인체육대회

히딩크, 상이군인체육대회 출전 한국선수단 방문해 격려

김용래 연합뉴스 기자

레이티 하버드의대 교수

“체육수업은 낭비?...하버드 대선 시험기간 운동 독려”

김은경 조선일보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김현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희생돼서는 안 된다

우리 법에 보면 오랜 기간 별일 없이 부동산을 점유할 때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것을 점유취득시효라고 한다. 오랜 기간 자기 땅처럼 살다 보면 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법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법을 어기고 있는데 다들 그렇게 살고, 특별히 지적하는 사람도 없이 당연시하며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법을 어기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조차도 어렵게 된다. 그렇지만 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스포츠계에서 인권 문제를 두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종종 그런 경우를 마주하게 된다. 너무나 확신에 차서는 “안 때리고는 운동이 안 돼요”, “인권이다 뭐다 해서 뭐라 안 하면 제가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휴대폰이다 뭐다 짠 데 정신 팔려서 운동이 되겠어요?”라고 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어린’ 학생들을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자기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항변한다. 그들에게 이 ‘인간 만들기’의 요체는 ‘인성’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말하는 인성의 종류는 말하는 사람 수만큼이나 많았다. 결국 그들의 인성은 자신의 신념에 바탕을 둔 것에 불과하다는 소리다. 심지어 그 그릇된 신념이 불러온 인권 침해조차 “현장을 모르는”, “운동을 안 해 본” 사람의 관점에서만 유효한 것이지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통용될 수도,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치부하기 일쑤였다.

이런 행태와 관련해 최근 대선 공약에서도 눈길을 끄는 일이 있었다. 바로 학생 선수는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이므로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조차 ‘전면 재검토’ 공약에 포함돼 버린 것이다. 이 당연한 일은 부끄럽게도 최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서도 ‘굳이’ 다루어졌다.

교육기본법에도 초중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정해 그 권리를 보장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이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수업 결손은 관행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에 결석 허용 일수를 차례대로 축소해 나가던 교육부가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초등학생 0일, 중학생 10일, 고등학생 20일로 재차 축소를 발표하자 일부 체육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큰 반발이 일어났다.

이것이 선거와 맞물리면서 후보들의 ‘전면 재검토’ 공약으로까지 이어지고 만 것이다. 결국 일부 체육인들의 ‘점유취득시효’ 같은 주장으로 인해 교육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일단락됐지만, 학생 선수들의 시급하고 당연한 권리인 학습권조차도 잘못된 관행에 밀려 더 유보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을 다닌 결과는 그들의 주장과 좀 다르다.

국가 주도의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은 한계에 다다라 운동할 학생조차 부족한 가운데, 선수나 학부모 모두 운동만 고집해서는 먹고살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습권의 철저한 보장을 ‘강제로’라도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현장을 모른다’는 소리는 그들만의 현장에 근거한 소리일지도 모른다.

최근 한 드라마에 나온 학생 펜싱 선수 ‘나희도’는 수업시간에 당연한 휴식(?)을 만끽하고, 시험에서 꼴찌도 당연시한다. 이런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라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현장을 모르는 소리다. 단언컨대 아직도 현장은 학업과 운동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제 새 정부에서는 공약에 따라 스포츠 혁신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될 것이다. 기왕에 살펴볼 것이라면 진짜 ‘현장의 목소리’도 자세히 살펴봐 주길 간절히 바란다.

체육활동 활성화, 문체부도 나선다

한국야구위원회(KBO) 허구연 총재가 스포츠서울과 인터뷰에서 “국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4월25일자 본지 2면 참조)한 것과 때를 같이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유관기관과 함께 체육활동 장려 이벤트를 개최해 눈길을 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데 따른 체육활동 활성화에 앞장서는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를 ‘스포츠주간’으로 지정했다. 지난해까지 체육주간으로 불리던 것을 지난 2월 스포츠기본법 개정으로 명칭을 바꿨다. ‘스포츠로! 일상으로!’를 슬로건으로 운동으로 체력과 건강을 키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를 담았다. 국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문화상품권으로 보상하거나 프로스포츠 티켓할인 등 이벤트를 준비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른바 ‘안무 챌린지’를 기획했다. 가수 노라조 안무에 맞춰 공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을 업로드하면 우수 참여자에게 상품을 제공한다. 공단 홈페이지에 해시태그 #나를 깨우는 움직임을 적어 운동하는 사진을 등록하는 행사도 한다.

국민체력인증센터는 25일부터 홈페이지 회원 가입자와 국민체력·스포츠활동 인증, 체력증진교실 등에 참여한 사람들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문화상품권 등으로 보상하는 ‘스마일 포인트’ 행사를 시작한다.

초등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마련했다. 25일부터 29일까지 가상현실 대회인 ‘리그 오브 스포츠’를 개최한다. 공 던지기, 야구, 양궁 등을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르는데, 가상현실 스포츠실에서 한다. 미세먼지, 코로나 감염 등에서 벗어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보급한 가상현실 스포츠실은 전국 초등학교(459개교)와 청소년 공공(체육)시설에 설치돼 있다.

프로스포츠협회도 동참했다. 코로나로 위축된 관람문화와 여가소비 활성화를 위해 KBO리그를 포함한 K리그, 프로농구 등 프로스포츠 티켓 할인권을 7월까지 배포한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홈페이지와 티켓 예매 사이트 등에서 선착순으로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25일부터 서울 고척스카이돔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에서도 취식과 육성응원이 가능해 코로나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4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증강현실(AR) 필터를 활용해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등록하는 사람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을 주는 ‘스포츠주간 친환경 행사’를 30일까지 진행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 스포츠주간을 계기로 국민들이 코로나로 쉬었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따뜻한 봄날에 가족과 함께 프로스포츠 경기도 관람하면서 일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취업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오는 5월11일 오후 6시까지 '2022년 실무맞춤 인재양성 교육과정' 대상을 모집한다.

만 39세 미만의 스포츠 분야 취업 희망자 100명을 모집하며, 교육 기간은 5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로 약 4주이다. 교육은 온·오프라인 혼합의 형태로 진행된다.

'2022년 스포츠 분야 Cheerup 취업 프로그램'은 취업 전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스포츠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과 취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스포츠 산업 트렌드 교육과 함께 △직무 이해도 교육 △과제 해결형 교육 방식의 직무 심화 교육이 제공된다. 심화 교육은 마케팅·홍보와 경영기획·행정의 두 직무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마케팅·홍보 직무에서는 △스포츠 구단 마케팅 △상품 기획과 BM △스포츠 브랜딩 전략 기획 △온라인 마케팅 등의 상세 교육을 진행하고 경영기획·행정 직무에서는 △협회 경영기획 △인사/총무 △경영지원 △HRD (인재개발) △조직문서 기획 및 보고 등의 상세 교육을 통해 세부 직무별 실무를 이해하고 과제를 수행한다.

이번 취업 교육 과정에서는 모든 교육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도서 구매비(10만 원) △노션 포트폴리오 템플릿 △교육생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우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50명) △AI 면접 및 1:1 취업 컨설팅(20명)이 추가 제공된다. 스포츠 기업 현장실습은 최대 3개월간 할 수 있으며 월 80만 원이 지원된다.

교육생들은 교육 이외에도 직무별 실무진들의 피드백과 멘토링을 받아 실제 취업에 활용하기 위한 취업 포트폴리오를 받아볼 수 있다. 교육의 후반부에는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와의 Q&A 시간을 포함한 취업 토크콘서트가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까지 95조원 성장 목표에 맞춰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 보다 강화된 역량을 가진 인재 양성을 위해 이번 과정을 모집한다"며 "실무 역량 강화에 최적화된 이번 프로그램이 스포츠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모집 소감을 밝혔다.

히딩크, 상이군인체육대회 출전 한국선수단 방문해 격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거스 히딩크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일(현지시간) 헤이그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인빅터스게임)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을 깜짝 방문해 격려했다.

네덜란드 출신인 히딩크 전 감독은 이날 오전 헤이그 주이더파그 내 '네이션스 홈'을 찾아 이번 대회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과 만났다.

히딩크 감독은 "한국 선수단이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인빅터스게임에 출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일보다 우선해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며 "20년 전 한국에서 쌓은 인연이 네덜란드까지 이어져서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히딩크 감독의 깜짝 등장에 선수들은 '히딩크'를 연호했고 히딩크 전 감독은 특유의 어퍼컷 세리머니로 선수단의 환영에 화답했다.

히딩크는 "신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운동을 하는 여러분이 존경스럽다"며 "2002년에도 한국인 특유의 화이팅 정신을 경험했는데,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그런 정신으로 끝까지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히딩크 전 감독은 선수 한명 한명과 일일이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해주며 1시간가량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자리를 뒀다.

한편, 인빅터스게임 한국 선수단은 전날에는 우크라이나 선수단을 만나 자발적으로 모금한 응원 성금 3천 유로를 전했다.

우크라이나 선수단장인 인나 드라한축 국방차관은 "우크라이나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도움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체육수업은 낭비?... 하버드 대선 시험기간 운동 격려”

“한국의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체육 수업은 낭비’라고 여기지만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버드대에선 시험 기간일수록 더 밖으로 나가서 운동하라고 독려하는 데 다 이유가 있죠.”

‘운동시키는 정신과 의사’로 잘 알려진 존 레이티(Ratey·74) 하버드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가 한국을 다시 찾았다. 2년 만이다. 지난 20일 그를 만나 코로나 이후 학교 일상 회복을 위해 뭐가 중요할까 물었다. 레이티는 평소 이론대로 “학교를 이전처럼 돌려 놓으려면 체육 수업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가 망가뜨린 건 학생들 체력만이 아니에요. 학력, 정서, 사회적 역량이 다 무너졌죠. 이것 회복하는 열쇠는 체육 수업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학생들 체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늘어난 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교육부 학생건강 체력평가(PAPS) 결과를 보면 전국 초·중·고교에서 ‘저체력’으로 분류되는 4·5등급 학생 비율이 2019년 12.2%에서 지난해 17.7%까지 늘었다. 학력도 떨어졌다.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조사 대상인 중3과 고2 학생들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모든 과목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에는 코로나 이후로 등교 일수가 적은 고교의 하위권 학생이 비율이 더 많다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다.

레이티는 “운동 부족이 학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도 운동이 중요하다고 했다. ‘운동해야 똑똑해진다’는 얘기다. 그는 “운동은 뇌세포가 새로운 정보를 쑥쑥 빨아들이도록 만들어준다”고 했다.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하면 뇌로 피와 산소가 활발하게 공급되고, 인지·기억 작용을 담당하는 뇌세포의 성장을 돕는 단백질이 많이 분비된다는 것이다.

이런 효과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 일리노이주 네이퍼빌 고교 ‘0교시 체육수업’ 실험이다. 1년 동안 학생들에게 정규 수업 전 1마일(1.6km)씩 달린 뒤 수업을 듣게 했더니, 달리기를 안 한 학생들보다 평균 성적 상승률이 2배 높았다는 것이다. 읽기 점수도 17% 향상됐다고 한다. 하버드대에서 학생들이 매주 모여 달리기를 하는 ‘하버드 온 더 무브’(Harvard on the Move) 캠페인이 10여 년째 이어지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레이티는 “운동이 학습 효율성을 올리고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건 하버드대에선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말했다.

뇌를 깨우는 운동으로 레이티는 달리기나 줄넘기 같은 유산소운동을 가장 추천한다. 하지만 학교 체육 수업에서는 그보다 2~4명씩 팀을 지어 운동하는 게 더 좋다고 했다. 체육 수업은 각자 운동하는 게 아닌 상호작용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함께 운동하면 규칙을 익히고 배려하는 법을 배울 수 있죠. 의욕과 행복을 불러일으키는 호르몬도 더 많이 생성돼요. 이렇게 중요한 체육 수업 시간, 절대 ‘자습’하면 안 됩니다!”

주간 스포츠 소식

국민체육진흥공단,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https://star.mt.co.kr/stview.php?no=2022042511535260608>

'전남도민 체육 한마당'... 제61회 전남체전 출격 준비 완료!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062>

'담배 피냐?' 격분...제자 마구 폭행한 중학교 체육교사 징유

<https://www.news1.kr/articles/?4659012>

2조원 주무르는 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 "한국 스포츠 버팀목 공단, 영역 세계로 확대할 것"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2409540000923?did=NA>

태안에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체육시설 건립...2024년 완공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1107900063?input=1195m>

밀양시, 제58차 생활체육 시민건강 걷기 대회 개최

<http://www.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5364>

'거리두기 해제' 초교 운동장 웃음 가득...입학 3년 만의 첫 체육대회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8_0001837506&cID=10201&pID=10200

국민체육진흥공단, 장애인 맞춤형 비대면 스포츠 강좌 개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1046600007?input=1195m>

김영기 전 KBL 총재, 소강체육대상 대상...우상혁·황대헌 특별상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0108800007?input=1195m>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